

익산시, 예산 1조 4907억원 확정

코로나 극복 위한 민생경제 안정·일자리 창출 집중 전년대비 1588억원 증가, 방역 최우선 신속집행키로

익산시의 내년도 예산이 1조 4907억원으로 확정됐다. 시의 내년도 예산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안정과 일자리 창출, 환경·안전분야 예산이 집중되는 등 어려운 시민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졌다. 전체적으로 전년대비 일반회계는 1,421억원(12%) 증가한 1조3,269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67억원(11.4%) 증가한 1,638억원으로 결정됐다.

내년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민생경제 분야는 익산사랑상품권을 312억원, 영세소상공인 카드수수료 11억원, 소상공인 특별보증 2억원, 영세소상공인 대출자금 이차보전 1억2천만원, 중소기업 육성자금 이차보전금 7억원 등이다. 맞춤형 일자리 사업 분야는 예비사업자 지원 18억원, 지역주도형 및 전북디지털 청년일자리 등 29억원,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21억원, 익산형 뉴딜일자리 6억원, 대학생

행정연수 및 단기인턴 4억원 등이다. 다시 찾고 싶은 관광·역사 분야는 세계유산보존 관리 145억원, 고도지정 지구 육성 및 환경개선사업 55억원, 국가지정 및 등록문화재 보수장비 67억원, 구름마을 대나무숲길 20억원, 왕궁보석데마 대표관광지 조성 16억원, 미륵사지지구 관광지 조성 10억원 등이다. 더불어 사는 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지급 1,416억원, 생계급여 533억원, 노인일자리 344억원, 영유아보육료 326억원, 가정양육 수당 40억원 등이다.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안전 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상 105억원, 전기차 구매지원 110억원, 수소차 구

매지원 45억원, 재해위험개선지역 정비 199억원, 공원조성 계획 50억원, 평화육교 재가설 52억원 등이다. 안정적 농업생산 지원 분야는 기본형 공익직접 지불제 384억원, 논농업 환경보전 지원 100억원, 유기질비료 지원 24억원, 발농업 직불제 20억원,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 및 퇴액비 등 51억원 등이다. 방역 및 보건 지원 분야는 신종 감염병중추군 예방관리사업 2억원, AI위킹스루 살균부스 설치 2천만원,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 1억원, AI·I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3억 4,000만원, 모바일 헬스케어 800만원 등을 지원한다. /익산=장양원 기자

주민번호 뒷자리 없는 여권 군산시 오늘부터 발급 시행

군산시가 21일부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이번 조치는 매년 13만권 이상의 여권 분실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여권의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기로 한 개정여권법의 시행에 따른 것이다. 주민등록번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규정상 여권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며 출입국 때 심사관들이 확인하는 정보도 아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려면 전국의 무인발급기에서 여권정보증명서를 발급받아 여권과 함께 제시하면 된다. /군산=한경봉기자

지역 소식통

익산시의회, 정례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유재구)가 지난 18일 3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2회 제2차 정례회를 폐회하고, 2020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달 26일부터 28일간의 일정으로 조례안 19건 등 일반안건 심의, 2020년 제회 추경예산안, 2021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등의 의정활동을 마쳤다. 특히,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한동연)에서는 2021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역경기 활성화 사업을 최우선 순위로 검토하며, 시민의 삶에 활력을 줄 수 있는 사업인지 역점을 두고 심사했다. 의결된 2021년도 익산시 본예산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13,269억원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500억원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600억원 ▲공영개발사업공기업 특별회계 286억원으로, 2020년 본예산 13,319억원 보다 1,588억원 증가한 14,907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익산=장양원기자

전통시장 활성화 간담회

익산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친체된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시는 지난 18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인장진흥공단, 전통시장 상인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협약은 장현을 시장을 포함해 권대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과 조봉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서길봉 전통시장 상인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통시장 소상공인은 판매물품 원산지 표기, 친절·위생서비스 실천하기로 했으며 시는 지역 특산물의 브랜드화 판매촉진 개발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협약내용이 잘 이행되도록 당사자 간 소통과 갈등 조정에 힘을 예견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 미세먼지 저감 시군평가 '최우수'

2년 연속... 포상금 700만원 부서 협업·현장행정 호평

군산시가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시군평가 결과 2년 연속 최우수에 선정됐다.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북도의 2020년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 결과, 군산시가 최우수에 선정돼 기관포상 및 포상금 700만원을 수여받게 됐다. 평가항목은 생활성 연소 저감 이행, 비상저감조치 이행,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주요사업 집행, 정부 주요 시책 추진 등 5개 부문 16개 지표에 대해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군산시는 생활성 연소저감을 위한 전북권 미세먼지 업무 협약에 따

른 추진사항 평가에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충실히 이행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상먼지사업장 점검, 배출가스 5등급차량 관리, 단체장 현장행정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 친환경 전기자동차 보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저공해화 사업, 집중관리도로 관리,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추진에서 타 시·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 시는 내년도에 올해 중점 추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및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면서, 5등급차량 소유주에게 조기폐차를 적극 유도함으로써 노후차량 매연으로부터 대기질을 관리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생활속에

서 미세먼지가 저감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12월부터 오는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기에 대비해 지역 특성에 맞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계획을 수립, 드론을 활용한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을 집중 점검하면서, 영농부산물 등 불법 소각행위 집중 단속 및 홍보 등 14개 추진과제를 중점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강임준 군산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시군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한 환경정책과와 그 외 관계부서의 노고를 격려한다"면서 "미세먼지는 사회적으로 중요한 문제인 만큼 시민의 건강한 삶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 함라산에 새로운 휴식공간인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익산 함라산 '국립 치유의 숲'으로

전북 유일... 2022년부터 착공

익산시가 산림청과 손잡고 도내 유일의 '국립 치유의 숲'을 조성한다. 도내 최초로 조성되는 치유의 숲은 시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청정한 자연환경과 연계한 힐링 관광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18일 시에 따르면 한반도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위치한 익산 함라산에 새로운 휴식공간인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울창한 소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함라산에 오는 2024년까지 국비 100억원이 투입돼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국립 치유의 숲'이 조성된다. 대상지는 용포면 용포리 산95번지 일원(6필지) 약 60ha이며 산림치유센터와 전망대, 무장애 데크 숲길 등이 조성된다. /익산=장양원기자

시는 내년도 국비 2억원을 확보해 기본계획과 기본설계 용역을 시작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공해 2024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국립 치유의 숲은 산림청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전국에 10곳(강원도 4, 충남 1, 충북 1, 전남 2, 경북 1, 울산 1)이 조성돼 있다. 현재 조성 중인 곳은 2곳(전남 화순, 부산 사하)이며 도내에서는 유일하게 익산이 13번째 조성 예정지로 확정됐다. 시는 국립 치유의 숲을 인근에 위치한 주요 관광지, 청정한 자연환경과 연계해 지역의 힐링 관광지로 발전시켜나갈 방침이다. 국립 치유의 숲 예정지 인근에는 산림문화체험관 고품돌이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체험시설이 있으며 명품 임도 숲길(태봉골 칠목재 9km구간)과 중요 산림자산인 최북단 녹차 자생지가 위치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익산시 '지역복지사업' 2개 부문 5년 연속 '우수'

익산시의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정부로부터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시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지역복지사업 평가' 2개 부문에서 5년 연속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수상 분야는 '지역사회보장계획 평가'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 부문이며 우수상을 수상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총 2천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각종 복지사업에

대한 추진 성과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제고와 국정과제에 대한 지자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시행 결과 평가 부문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 협력을 통한 특화사업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청년 취업 지원 및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을 위한 사업 ▲고령화 대비, 저출산 극복 사업 등 51개 사업을 계획단계부터 체계적으로 수립해 추진한 점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이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는 읍면동의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건강서비스를 추가하여 주민 생활과 밀착된 맞춤형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의 다양한 복지요구 충족과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협력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와 촘촘한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 전국적인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장현을 시장은 "앞으로도 시민욕구와 코로나19 등 여건을 반영한 주민민공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익산형 공공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